

‘그날’까지 새로운 삶 ‘서원’

지관 스님, 사형수 5명에 수계

부처님오신날을 며칠 앞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근교의 낯선 건물 앞.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지관 스님은 이날 누구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 있었다.

이날은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지관 스님에게도 각별한 날이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관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강당에서 사형수 5명에게 계를 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 이날 수계법회의 전제대화상 지관 스님은 “죄라는 것은 본래 없고 죄짓는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한번 잘못 일으키면 죄가 된다. 알고 저지르든 모르고 저지르든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이날 지관 스님으로부터 5계를 받은 사형수는 ‘덕문’ ‘정광’ ‘법수’ ‘수월’ ‘정암’이다. 38세부터 51세까지 다양한 나이의 이들은 옥색 수의와 붉은색

수인번호가 아니면 한없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때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얼굴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사형수를 이곳에서는 ‘최고수’라 부른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붉은 패찰에 수인번호를 새기고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유일한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이다. 삶과 죽음이 혼재된 이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데 종교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국내에 수감중인 사형수 63명의 종교는 개신교 32명, 가톨릭 18명, 불교 10명, 기타 종교 1명, 무교 2명 등으로 거의 가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무명구름이 걷히면 맑은 달이 비칠 것”이라며 ‘수월’이라는 법명을 받은 고병수(가명·41)씨는 7년 전 이곳에서 지관 스님과 처음 만났다. 한눈에 봐도 건장한 체구의 고씨는 평범하고 맑은 인상이지만, 한때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해친 폭력범이었다.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서울구치예만



지관 스님이 서울 구치소 사형수 5명에게 계를 설하고 있다.

2년 수감된 전력을 가진 지관 스님은 당시 사형수 고씨를 불교에 귀의하게 만들었다. 같은 사동에 있던 스님은 출소한 날 새벽 조용히 고씨가 수감된 방에 염주와 불서를 전하고 사라졌다. 그 뒤로 인연은 계속됐고 지금 스님은 사형제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지관 스님은 ‘부처님은 모든 만물이 한 몸으로 귀하다’ 가르쳐 주신 분이요. 지난날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 이들 만큼 선한 사람들이 없다. 당장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씨는 얼마 전 방송통신 과정으로 ‘포교사교시’ 과정을 마쳤다. 손재주가

남다른 그는 요즘 불화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감옥 안에서는 마땅한 재료가 없어 말린 오징어에서 나온 대나무 막대기를 조각칼 삼아 비누를 깎아 불상도 만든다.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면 평생 절에서 일하고 싶다”는 고씨는 “수형자들에게 대한 불교계 관심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하다”며 아쉬워했다.

“이 안에서 ‘지범개차(持犯開遮)’를 따져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엄격하다”며 “‘그날까지’ 불교를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됐다”고 말했다.

글·사진=조용수 기자



부처님오신날은 ‘나눔의 날’

조계사, 구형에 ‘자비의 선물’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사(주지 원담)가 종로구형에 훈훈한 ‘자비의 선물’을 전달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사회국장 범성 스님과 조계사 신도회 이연숙 회장 등은 5월 2일 종로구형으로 김충용 구청장을 찾아 장애인용 화장전화기 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화장전화기는 종로구청과 창신동사무소, 효자동사무소, 서울농학교에 설치될 예정이며, 목거노인들에게 전달되는 750개의 선물세트에는 속옷 등의 생필품과 단추 등이 담겨 있다. 조계사는 또 ‘하악좌측 과두 돌기 악관절 내장증’을 앓고 있는 박수진(14)에게 치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철주 기자 jyc@buddhapia.com

동대부중 범당 확장 이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교장 박일상) 큰법당 개원 및 법안식이 5월 1일 봉행됐다.

법당은 교내 5층에 조성돼 있었으나 오래전에 지어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법당을 1층(면적 89.24㎡)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해 올해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법안(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화랑(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스님 등 2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장 원혜 스님은 “법당 개원으로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에 더욱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개운사-성북구사암련 경로잔치



개운사주지 공운와 성북구사암련협의회(회장 정수)는 4월 25일 성북구 지역 어르신을 초청한 가운데 개운사 경로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양주경찰서 경승위원회 봉축법회



양주경찰서 경승위원회는 5월 2일 경승실장 왕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일초 스님 인천수륙대제 봉행



인천광역시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대제 보유자 일초 스님(삼계종 총무원장)이 4월 28일 전수생들과 이끌고 인천수륙대제를 봉행했다.

스님들 근골격·소화기계 질환 많아

방석 5cm 높이고 따뜻한 음식 섭취해야

경희의료원 불자회

스님 175명 진료결과 분석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수행. 하지만 잘못된 수행 자세와 식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권혁은, 이화경불련) 진료봉사팀은 지난해 6월 모 사찰의 스님 175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 결과를 토대로 49%(79명)가 발목 관절, 무릎관절, 요통, 어깨통증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으며 23%(40명)는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계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한 사람의 진료기록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무리한 참선 또는 참배나

생식 등의 ‘거친 생식’을 위주로 하는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신경계질환 12명(7%), 허약 8명(5%), 호흡기계 7명(4%), 비뇨기계 6명(3%)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고혈압(경계성 고혈압 포함 49명)이 저혈압(3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치는 67%가 정상으로 나왔으며, 당뇨 기준에 해당하는 고혈당은 10%(18명)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료진은 “참선 시 가부좌를 취할 때 척추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방석을 5cm 정도 높이고, 일정 시간 참선 이후에는 몸을 서서히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근육을 이완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소화기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생식 위주에서 벗어나 소화흡수가 잘 되는 따뜻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님들에게서 때때

야 될 수 없는 차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지 말고, 자신이 마시는 차가 체질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혈압의 경우 본래 혈압이 높은 본태성 고혈압이 주원인인 것으로 의료진은 해석했으며, 저혈압 환자의 경우 호두, 잣 등의 식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김덕근 교수는 “30분 정도 참선한 후 5~10분간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만, 실제 참선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수행자를 위한 건강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스님들도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회 진료봉사팀은 스님들을 위한 무료 진료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찰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목탁소리

연등축제가 열린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우정국로에 경남 창원반호관을 단 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합천 연호사 신도 46명과 주지 진각 스님이 탄 버스였다. 이들은 왜 바쁜 농사일과 봉축준비를 접어두고 서울나들이에 나선 것일까. 불교문화마당 부스들을 돌며 관람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한 연호사

신도들은 마냥 즐거운 듯 웃음을 달고 다녔다. 신도들은 동대문운동장의 어울림마당과 봉축법요식에 직접 참가했고, 제등행렬의 장

‘서울 연등축제’ 전학왔어요

엄한 물결도 끝까지 지켜봤다. 신도들에게 이날 체험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주지 진각 스님이 신도들에게 주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선

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도들은 거대한 규모와 다양한 내용의 연등축제를 보고 뿌듯함과 자신감을 얻었으니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을 것이었다.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어떻게 축하하는지 신도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는 진각 스님은 이제 신도들이 합천에서도 이런 축제를 열자고 제안하지 않을까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박병영(취재부) 기자

일주 문

‘석주스님’ 주제세미나 열어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5월 1일 ‘근·현대 한국불교의 산증인 석주 큰스님’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봉행했다.

국토수호 범국민결의대회
서울 삼광사 주지 일경 스님은 4월 30일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 땅!’ 주제로 국토수호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부산 선암사 신도회장 취임
부산시 설동근 교육감은 4월 29일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선암사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남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은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운림이 거친없이 힘차고 긴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관: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원: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소: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 055)356-2040, 011-867-4747